“노벨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예로운 순간 될 것”

지스트 화학과 김유수 교수

한국인 최초 日수석과학자 선정
지난해 9월 광주 정착 연구 견인
“광주, 기초과학 하기 최적 조건”

지스트 화학과 김유수 교수(IBS 양자변환연구단장)가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광주에 대한 소회,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 지스트 제공

30년 가까이 일본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해온 김유수 교수(지스트 화학과 교수, IBS 양자변환연구단장)가 광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수석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도쿄대학 등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분자의 세계를 들여다봐 온 그는,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가 지난해 9월 1일 ‘IBS 양자변환 연구단’과 ‘IBS 상대론적 레이저과학 연구단’을 유치·출범시키면서 광주에 정착했다. IBS 연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이다. 본보는 4월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IBS 양자변환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유수 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수의 최근 성과는 전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일 분자의 양자 상태를 피코초(1조분의 1초) 단위로 실시간 조작하고 관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보는 과학’을 넘어 ‘다루는 과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성과로, 초고감도 센서, 양자컴퓨팅, 에너지 소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김 교수는 “이 기술은 전자의 파동함수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화학 반응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기초과학이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일본의 리켄, 도쿄대학 등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과학은 본래 국경이 없는 분야이고, 다양한 배경과 시각이 모일 때 진짜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가 그리는 과학 커뮤니티는 국적이나 세대를 넘어, 순수한 질문과 열정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예로운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을 지지해준 사회 전체의 성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라는 도시 역시 김 교수에게는 특별한 의미다. 그는 “광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 등 철학이 어우러진 곳”이라고 광주를 설명했다. 문화적 깊이를 지닌 광주는, 그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미지의 세계를 밝히는 빛’이라는 연구 철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됐고, 연구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광주가 흔히 ‘닫힌 도시’로 표현되곤 하지만, 오히려 그 느린 속도와 집중력은 기초과학을 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라며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깊은 생각이 가능한 도시,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환경이야말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가 단지 연구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체류형 열린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국, 세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기초연구와 산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식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연구, 좋은 도시, 좋은 사회는 결국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라며 “광주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담벼락 넘어 현금 훔친 60대 구속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택 담벼락을 넘어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북구 임동의 한 주택에서 8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16일 동구 계림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광주 사립학교 과도한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전체 18.5% 차지…의존도 심각
교육 현장 안정성·공공성 위협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대비 2025년 정규 교원 수는 1만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 감소에 그쳤다.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41.8%(정규 505명, 기간제 363명), 사립 고등학교는 40.1%(정규 1378명, 기간제 923명)로, 이는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단체는 이러한 상황이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학생 생활 및 진로 상담, 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사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광주 사립학교인 A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12개 학급 중 11개 학급의 담임을 기간제 교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은 생활 지도뿐 아니라 진학 지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만, 계약직 교원이 맡을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또한 일부 학교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학교폭력 업무 등 기피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교육과정의 신뢰성은 물론, 학교 내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관행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정규 교원 확보 계획 수립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 점검 △사학기관 평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유철 기자